

## 살펴 보기

: 심폐소생술,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지역본부 교육사업팀에서는 지난 5월 13일, 사업장에 방문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 산업현장에서의 갑작스러운 심정지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현장. 지금 만나본다.

글 편집실

#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부산경남지역본부 교육사업팀 심폐소생술 교육현장





‘골든타임’,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고 발생 후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뜻한다.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발생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3~5분 남짓.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심폐소생술을 통한 응급처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지역본부 교육사업팀에서는 지난 5월 13일, 산업현장에서의 갑작스러운 심정지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사업팀이 방문한 사업장은 바로 성우하이텍. 심정지로 쓰러진 동료 직원을 심폐소생술로 살릴 수 있었기 때문일까? 이미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번 교육에 참여한 성우하이텍의 임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교육에 참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할 법도 한데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몸소 깨달은 성우하이텍에서 직접 체험형 교육을 요청했다.

이에 부산경남지역본부 교육사업팀 이미은 차장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응급구조 시 안전 수칙, 심폐소생구조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기도폐쇄처치법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을 진행한 이미은 차장은 “과중한 노동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를 유발해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업현장에서 심정지로 동료가 쓰러질 경우, 심폐소생술을 통해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과로로 사망한 노동자(503명)는 이미 추락으로 사망한 노동자 수(347명)를 넘어섰다. 많은 노동자가 과로로 인한 심정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최근 부산지역의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 등과 같은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이 곧 사업장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일이기도 하다.

성우하이텍처럼 더 많은 사업장에서 이에 관심을 갖고 노동자가 건강한 산업현장을 만들어나가길 바라본다. ☺